취재파일

대한축구협회 올림픽 '헛발질' 김학범호 '반쪽자리 리뷰' 예감

김학범 감독

한국축구는 2020도쿄올림픽 8강에 머물렀다. 역대 올림픽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멕시코와 8강전(3-6 패)은 참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패한 이 한 경기 결과에만 매몰되어선 곤란하다. 우리의 최대치를 보여줬고 현주소가 정확히 반영된 만큼, 이를 새 출발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대한축구협회(KFA)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6월)~아르헨티나~프랑스(이상 7월) 등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를 초청했고, K리그의 협조를 얻어 선수들을 큰 잡음 없이 차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 제대로 헛발질을 했다. 현장과 한참 거리를 두고 있다가 정몽규 회장 3선 집행부가 꾸려진 올해 초 집행부로 복귀한 황보관 대회기술본부장을 올림픽대표팀 단장으로 선수단과 동행시킨 것이다.

김학범 감독을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고,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부터 지난해 초 올림픽 예선을 겸한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등을 함께 거치며 현재 선수단을 가장 잘 아는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

김 감독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경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은 황보 본부장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라는 것은 축구계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임에도 KFA는 어찌된 영문인지 최악의 인사를 단행했다.

KFA의 이해 못할 헛발질은 또 있었다. 테크니컬스터디그룹(TSG) 위원을 현장에 파견하지 않은 것이다. 역시나 올림픽 AD카드(출입증)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댔는데, 이럴수록 전문가 그룹이 파견됐어야 옳다. 역시나 결과는 참사였다. 상대 분석과 대응책 마련, 전략 수립 등의 측면에서 올림픽대표팀은 고전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 올림픽 리뷰가 기다리고 있다. KFA 전임 집행부는 주요 국제대회가 끝날 때마다 리뷰를 진행했다. ▲코칭스태프 대회 결산 ▲현장 파견 TGS 리포트 ▲스포츠과학위원회의 체력 준비 보고서 ▲스카우트위원회의 선수 선발 의견 등에다 KFA 행정 파트의 대표팀 지원(캠프·평가전 등) 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대부분은 미디어 브리핑까지 열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 집행부가 동일한 의지를 갖고 올림픽 리뷰를 한다고 해도 '반쪽짜리'가 불가피하다. 김 위원장과 TSG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림픽 이전의 과정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일본 현지 상황을 리포트로 만들어 보고하는 것은 온전히 황보 본부장과 이번 인사를 단행한 누군가의 몫이 됐다. 올림픽 성화가 꺼진 지금까지도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KFA의 다음 행보가 궁금할 뿐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로 돌아온 올림피언들, 메달 실패 딛고 펄펄

울산 이동경, 이동준, 원두재(왼쪽부터) 등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메달 획득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K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올림픽 아픔, K리그서 씻는다"

이동경 2경기 1골·이동준 2골 폭발
원두재 성실한 몸놀림 팀연승 일조
전북 송민규 특유의 활동량 기대감
홍명보 감독 "본인도 모르게 성장"

김학범 감독이 이끈 올림픽축구대표팀은 2020도쿄올림픽 8강에서 멈췄다.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 8강전에서 3-6으로 참패한 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털썩 주저앉았고, 일부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K리그의 축구인들은 "사흘에 1경기씩 치르는 혹독한 일정의 올림픽에 오래 남아도 걱정스러웠는데, (메달 실패) 후유증은 솔직히 더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행히 기우에 그쳤다. 영건들은 모두 씩씩하게 일어섰다. 특히 이동경, 이동준(이상 울산 현대)의 활약이 눈부시다. 멕시코전 패배 직후 김 감독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던 공격형 미드필더 이동경은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치른 2경기(4일 대구FC~7일 강원FC)에 모두 출전해 1골을 뽑았고, 윙 포워드 이동준은 2골을 몰아쳤다. 여기에 올림픽에서 다소 부진했던 중앙 미드필더 원두재도 성실한 몸놀림으로 팀의 연승에 일조했다.

올림픽 기간 진행된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포항 스틸러스를 떠나 전북 현대로 옮긴 송민규의 퍼포먼스도 대단했다. 주말 대구와 K리그1 23라운드 홈경기에 선발출전한 그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어도 특유의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 진영을 쉴 틈 없이 파고들며 향후 활약을 기대케 했다. 멕시코전 대량실점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전북 골키퍼 송범근도 예의 안정감을 되찾았다.

홍명보 울산 감독은 "선수들이 올림픽을 통해 많이 성장했을 것이다. 본인도 모르게 한 뼘 자라났을 것이다. 경기를 뛸수록 자신감이 붙게 된다. 우리 선수들이 이런 과정에 있다"고 칭찬했고, 김상식 전북 감독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그라운드다. 거기서의 아픔은 그라운드에서 다시 극복해야 한다. 후회 없이 싸우면서 아쉬움을 서서히 털어낼 수 있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대구에서도 올림피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사실상의 '캡틴' 역할을 해낸 중앙수비수 정태욱과 김재우는 나란히 울산 원정에 나섰다. "뛰어줄 수 있겠느냐"는 이병근 대구 감독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그러나 김재우는 폼이 좋지 않았고 결국 무릎 내측인대를 다쳤다. 다행히 추가 부상자는 없다. 정태욱은 여전히 팀의 든든한 지킴이로 남아있고, 올림픽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던 정승원도 전북 원정을 통해 리듬을 되찾았다.

이들뿐이 아니다. 올림픽에서 기량을 뽐낸 수비형 미드필더 김동현(강원FC)과 측면 전·후방을 폭넓게 소화한 윙어 김진야(FC서울), 윙 포워드 엄원상(광주FC), 김진규(부산 아이파크) 등도 휴식과 예열을 마치고 각자 소속팀의 후반기 레이스에 힘을 보탤 참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4경기 무패 대전, 다이렉트 승격 가시권

선두 김천과 승점 3점차 바짝 추격
컨디션 난조 일본인 마사 부활 관건

'축구특별시'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대전하나시티즌이 K리그1(1부) 다이렉트 승격을 위한 경쟁에 다시 돌입한다.

K리그2(2부) 대전은 지난 주말 1부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선두 자리에 가까이 다가섰다. 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0-0으로 비겨 승점 1을 추가했다. 승점 38(11승5무8패)의 대전은 선두 김천 상무(승점 41)를 바짝 추격했다.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면 1부로 곧장 승격하고, 2~4위 팀들의 플레이오프(PO) 승자가 K리그1 11위 팀과 승격·강등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대전 이민성 감독

2020시즌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탈바꿈한 대전은 승격을 위해 대대적 투자를 감행했다. 4위로 시즌을 마쳐 준PO에 올랐지만, 경남FC에 덜미를 잡혀 승격을 향한 꿈은 좌절됐다. 2021시즌에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 막강한 전력의 김천이 K리그2에 합류했고, FC안양과 부산 아이파크는 탄탄하게 선수단을 보강했다. 전남 역시 끈끈한 조직력으로 선전하고 있다.

대전은 올 시즌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는 기복을 보였다. 15라운드부터 20라운드까지 6경기 연속무승(1승1무4패)으로 5위까지 추락했다. 다행히 21라운드 안양전 2-1 승리를 시작으로 4경기에서 3승1무를 거둬 1위에 승점 3 뒤진 3위로 상승했다.

들쭉날쭉한 공격력은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은 현재 31골로 팀 득점에서 2위에 올라있지만, 중요한 경기에선 부진하다. 올 시즌 김천(1무2패)을 상대로는 아직 승리가 없다.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을 일본인 미드필더 마사(26)의 몸 상태가 중요하다. 지난해 수원FC의 승격을 이끌고, 강원FC를 거쳐 대전에 합류한 마사는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인대 부상을 당했다. 1일 충남아산FC전을 통해 복귀했지만 컨디션 난조로 8일 전남전에는 결장했다. 출격이 예고된 15일 안산 그리너스전부터 마사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FA컵 16강전에서 전북을 제압했던 양주시민축구단이 11일 오후 7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펼쳐질 울산과 8강전에서 또 다시 이변을 노리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전북 잡은 'K3 13위 팀' 양주, 오늘 울산까지 노린다

울산 잡을 땐 '하부리그 팀' 새 역사
박성배 감독 "승부차기 더 준비 철저"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양주시민축구단이 FA컵에서 또 다시 '자이언트 킬링'을 노린다.

양주는 11일 오후 7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울산 현대와 '2021 하나은행 FA컵' 8강전을 치른다. 양주는 5월 26일 펼쳐진 16강전에서 지난해 우승팀 전북 현대를 승부차기 끝에 따돌리고 8강에 오른 바 있다.

양주는 K3리그 15팀 중 13위에 머물러 있지만, FA컵에선 선전 중이다. 1라운드부터 16강전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3차례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8강전에선 K리그1(1부) 선두 울산을 만나지만 겁 없이 달려들 참이다. 양주 박성배 감독(46)은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조직적인 면에서 많은 훈련과 준비를 했다"며 "상대 아우라에 밀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울산은 K리그1에서도 가장 속도감 있는 공격을 구사한다. 이동준(24), 이동경(24) 등 올림픽대표팀 주축들이 버티고 있고, 프랑스리그에서 복귀한 윤일록(29)도 첫 출전을 앞두고 있다. 박 감독은 "울산은 빠른 측면 공격에 최적화된 팀이다. 그 부분을 봉쇄할 수 있도록 수적 우위를 두는 훈련을 했다"며 대응 전략을 밝혔다.

이번 대회 승부차기에서 유독 좋은 결과를 냈던 양주는 울산전에서도 끝까지 갈 생각이다. 전북전에서 신들린 선방을 펼친 골키퍼 박청효(31)가 버티고 있다. 박 감독은 "전북전 때보다 승부차기를 더 준비했다"며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고 버티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FA컵 역사상 K리그 1·2위 팀을 잇달아 잡은 하부리그 팀은 없었다. 양주가 울산을 잡는다면 2019년 각각 4강과 결승에 오른 화성FC, 대전 한국철도를 뛰어넘는 성과다. 박 감독은 "주변에서 2번의 기적이 있겠냐고 말했지만 우리 선수들에겐 처절함이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